

한말글의 지구촌 시대 역할 조망

세종 대업 완성을 꿈꾸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김 병 동

들어가며

언어와 유전자는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의 특성과 직결된다. 오늘날 생명과학은 생명공학이라는 산업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서 거대한 정보 과학으로서 인문 사회적 의미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인간유전체 완독(2000년대 초) 후 이제는 인간 1000명을 각종 특징으로 비교하고 개인 유전정보도 분석하는 맞춤형 의학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처럼 온 누리에서 다양한 인종이 몰려와 섞여 사는 나라에서는 소량의 혈액 시료로 각자의 뿌리를 찾게 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까지 이미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메리카대륙 원주민의 유래를 유전자 변이의 정도로 추적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시아계 언어와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 영어 계통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 기록은 물론 고고인류학적 유물, 민속학, 특히 언어의 연구에 의해서 종합될 때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한말글이 얼마나 중요한 인류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지 그 여건과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말글이 세계사, 인류사, 문화사 연구의 필수도구임을 인식하여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꿈꾸고 시작한 세종 대업(세종 프로젝트)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을 이 세대가 시작하자.

한말글

필자가 이 글에서 의미하는 한글은 훈민정음으로 반포(1446)되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문자라면, 한말글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담아 써 오던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근세에 기록되기 시작한 한글 문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대와 국경과 문화의 경계도 넘어서 검토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사멸할 뻔했던 우리말을 한글로 지켜 낸 한글학자들과 한글성경 전파 등 노력은 대한민국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이어졌다. 한글전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과 높은 교육열로 연결되어 한국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 다만

한글전용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글은 대한민국 문자, 한자는 중국 문자라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자리 잡았다. 한글 애용을 위해 우리 고유의 말을 찾아 쓰면서 한자어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자 기피의 부작용으로 선조들이 쌓아 온 수천 년 문화유산이 외면당하고 전승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나라 발전의 거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현대 과학문명이 모두 영어로 통용되는 현실도 이에 한몫 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구미 자본주의 경제와 소비문화가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아시아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는 오늘날 세계는 동양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류 바람이 진정 뿌리내리고 힘을 발휘하려면 한글만이 아닌 한말글이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말글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필자가 무모한 시도를 무릅쓰는 이유를 구태여 밝힌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분자유전학자들에게는 인류와 생물의 분류, 진화, 이동, 그리고 언어, 문법, 논리 등은 관심이 높은 주제로서 각자의 좁은 전문영역을 벗어나 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욕구가 크다. 둘째,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여러 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고 세계 여러 지방과 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는 기회가 많다. 필자도 이러한 연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한말글에 가져왔던 관심이 단편적 지식으로 모아지고 조금씩 관련 전문가나 문헌에 연결되면서 지극히 초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식견을 갖게 되었다. 셋째, 한 개인의 단편적 통찰은 호기심 수준으로 끝나버릴 수 있으나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룰 수도 있다. 나 하나의 침묵은 진리 발견의 기회를 영원히 외면하고 묻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자각에 이르게 되면 오류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함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충정을 대변하듯이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John Stewart Mill, 1806-1873)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진리의 추구하고 발견에 유익함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소수 의견이 혹시 틀린 경우라도 그 오류를 반박함으로써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를 주게 된다고 하였고, 언론의 자유는 재능을 발전시키고 한 인간의 가능성과 창의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한말글에 관해 거쳐 온 일련의 인식 변천의 과정을 따라 글을 전개함이 의사 전달에 효과적인 것 같다.

우랄 알타이 어족

한국어는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배웠다. 가까이는 일본과 몽고, 멀리는 터키, 헝가리, 핀란드가 이에 속한다.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나라들에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 필자가 만난 터키인 학자는 터키와 한국은 같은 언어권에 속한다는 말을 먼저 꺼내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일본어가 우리말과 매우 유사함이 흥미로웠다. 대다수 국민의 의식이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어 속의 한국어

일본어는 우리의 선조가 한때 한글을 포기하고 창씨개명하면서 강제로 배우고 써야 했던, 그리고 한때 영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배우고자 했던 언어 정도로 이해되어 있었다. 일본어가 중국말과는 달리 우리말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은 했었다 그런데 필자는 1993년 조선일보 일요 연재 특집으로 소개된 이영희의 “노래하는 역사”를 대단히 흥미롭게 읽으면서 우리말이 일본어휘의 뿌리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8세기 초 일본 고전인 “만엽집(万葉集)”에는 우리 신라 향가와 비슷한 노래 4천5백16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중세 일본어와 현대 일본어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많은 부분이 정체불명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다. 이를 고대 한국어 이두로 읽으면 그 당시 신라, 백제, 고구려인들이 왕족이요 고위 관리로서 활동하던 정치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많은 예제 풀이는 설득력이 있었고 이 주제는 필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일본 고대사 기록인 일본서기(720년 편찬) 30권 중에서 첫 3권에는 신들의 계보, 천손강림신화 등이 있으나 일본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신화시대에 신들이 사용한 언어로만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 기록들이 고대 한국어라는 사실을 인명, 지명, 본문에서 명확히 해석한 책(오광길)도 발간되었음을 최근(2011) 알게 되었다.

조일신문(朝日新聞)을 ‘아사히심분’으로 읽는 데서도 “아침해”를 우리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한자를 빌려 쓴 것을 알 수 있고, 일본 회사 이름 히다치(日立)는 “해돋이”라는 우리말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지명과 단어들이 일본어에 무수히 깔려 있다고 한다. 한일 공통 어원을 밝힌 책들도 이제는 많이 발간되었다(김세택, 남신웅). 일본 안의 백제문화를 백제인 정착지 현장 조사와 비문 금석학으로 연구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 출판물(임동권)도 나왔다. 일본 천황도 자기 조상이 한국 유래임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미국 뉴스위크지에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한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그 동안 느끼고 알아 온 관념들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

필자는 2003년 국제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여행하면서 뜻밖

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나이가가라 폭포보다도 훨씬 장대한 “이과수” 폭포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의 접경을 이루며 흘러내린다. 원주민이 부르는 “이과수(Iguaçu)”는 “큰 물 big water”을 뜻한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필자는 귀가 번쩍 뜨였다. “수”가 우리말로 물인데 혹시 “이과”가 “크다”라는 우리말, 혹은 몽고말이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몽고말을 아는 주채혁 강원대 사학과 교수를 만나는 인연이 있어 물어보고 맞음을 확인했다. 서울대 김호동 교수의 대몽고제국(원 나라)과 고려의 외교에 관한 강연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대(大)에 해당하는 몽고어 발음이 “ek”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몽고인 물리학자 한 분에게서 ‘물’은 ‘오수’(osu, usu), “ik, ek”는 ‘많다, 크다’임을 확인하였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약 15,000년 전에 아시아인들이 얼어붙은 베링해협을 건너 이주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지만 남아메리카 원주민은 해양에서 진출한 남방계 인종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북부뿐 아니라 남부 아메리카 대륙의 사라져가는 원주민 언어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말을 모르는 서양인들은 위키백과에서 설명하는 대로, “iguazu”는 Guarani 또는 Tupi족 말로 “y” ㅁ, “물”, 그리고 “ûasú”[wa'su], “크다”임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의 유래를 여행책(홍수연-홍지윤)에는 인디언들이 “많다”라는 뜻의 “manha”와 “언덕”을 의미하는 “hatta”를 조합하여 “만나하타(언덕이 많은 섬)”라고 부르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말을 적용한다면 “많아 땅”이 적절할 것이다.

2006년 미국 위스컨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두 가지 부수입을 올렸다. 브라질 학자의 발표 내용 중, 브라질 남부의 “두루수”라는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붉은 고추를 독특하게도 바닥에 펼쳐서 태양에 말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습속도 우리나라와 공통되지만 “두루수(turuçu)”의 뜻이 궁금하여 물어보니 “큰 물, big water”라고 하였다.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고 했다. 두루두루 물이 넘치는 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한강을 “아리수”라 부르는 명명법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매디슨 지역 아메리칸 인디언을 직접 만나들은 바로는 그들의 조상은 먼 옛날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왔는데, 집 위에 집이 층층이 있고 지붕은 금으로 장식된 곳이라도 했다. 2011년 미국 뉴욕시 맨해튼 남단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에서 만난 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수천 개의 원주민 부족이 존재했으므로 단순한 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기원은 한국보다는 티베트에 더 큰 가능성을 둔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2011년 비엔나의 학회장에서 만난 한 브라질 학자는 성이 Correa였다. 조상의 기원은 알지 못했으나 그 뜻은 정미소 기계의 “두 바퀴를 연결하는 벨트(고리)”라고 배웠다고 했다. 고구려, 고려로 이어져 온 고리족의 고리는 문고리에서처럼 쓰이는 “고리”이며 같은 어원임을 얘기해 주었다. 그는 매우 흥미롭게 듣고 앞으로 조상 기원을 추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코리안이라 하지 않고 “고올리”라고 부른다는 말을 그곳 택시기사에게서 들었다. 모두가 연결되는 이야기다.

아직도 고유 문자는 없으며 말을 전수하고 있다는 미국 뉴멕시코주 “푸에블로” 인디언의 설명을 2001년경에 들으면서 인디언 족들의 말을 우리 한글로 채보할 수 있다면 우리말의 어원을 넓히면서 인디언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크고 작은 호수가 1만 개가 넘는다는 미네소타 주의 이름은 “미네(물)”와 “소타(많은)”에서 유래했다는 등 여러 예를 들으면서 이곳에 무궁무진한 우리말의 보고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시드니 브렌너(Sydney Brenner) 박사가 만찬석상에서 들려 준 바로는 미국 미시간주 소재 칼라마주(Kalamazoo)는 일본어로 “순수한 물”이란 뜻이라고 들었던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영국에서 대학교육 이후 평생을 분자생물학과 유전체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언어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의 아버지는 핀란드에 인접한 라트비아에서 이주했다고 했다.

이과수 폭포의 몽고어 관련 문의로 인연을 맺은 주채혁 교수가 멕시코에 깔려 있는 우리말에 관한 글을 전해 주었다. 손성태 박사는 배재대 스페인어 전공교수이다. 그는 2006년 영어와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기록한 멕시코인의 언어와 풍습에서 우리말을 발견하였다. 단순한 단어의 일치뿐 아니라 형태소의 일치까지도 확인하고 민족 이동, 민속, 고어 비교 등으로 매우 신빙성 높은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 연구가 크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개하는 바이다. 손성태 식 발음으로 ‘멕이코’의 아즈텍 문명과 그 이전의 테오티와칸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도, 우리 선조들 특히 요동의 아스팡(아사달)을 출발한 맥이족과 부여의 고리족이 일으킨 문명이었음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제시한다. 그들은 최소한 기원전 50여 년 전부터 약 일천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단다. 한 멕시코 여행 영상물에서는 멕시코인 관광안내원이 몽고인들은 약 3천 년 전에 멕시코에 옮겨왔다고 말하였다. 미국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말들에서 찾은 우리말 몇 가지를 전해 보자. 옥수수 corn은 우리말 콩이고, 옥수수 maize는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맛있어”라고 한다. 영어의 hurricane(허리케인)은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우리의 천둥소리 “우루황”에 가깝다고 한다. na(우리말 일인칭 주어 나), ashkii(아쉬키=아새끼, 소년), tepec(태백=산), 피라미드의 원어민 언어 tlachihualtepec(다지왈태백=다 지은 산), condor(콘도르=큰 새) 등 언어와 옷놀이, 비녀, 상투 등등 무수한 예들이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은 조선 건국(1392) 100년 후, 임진왜란(1592) 100년 전인 조선조 성종 23년에 해당한다. “1491”이라는 저술에서 저자 Charles C. Mann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491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 아즈텍(Aztec)의 수도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 같은 도시는 오늘날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가 월등히 많았다. 더욱이, 테노치티틀란은 그 당시 유럽의 어느 수도와는 달리 흐르는 물, 아름다운 식물원, 그리고 아주 깨끗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 서반구의 초기 도시들은 이집트가 큰 피라미드를 짓기 이전에 번성하고 있었다. 콜럼버스 이전에 멕시코 원주민들은 고도로 발달한, Science지가 지적한 대로 아마도 인류 최초이고 위대한 유전공학인, 옥수수 육종

법을 구사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지 않는 영농법을 알고 있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이 그의 말년에 멕시코와 잉카의 문명과 천문학을 추적하고자 그 당시 소련정부를 통하여 몽고 여행을 추진했던 열정은 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짐작하게 하지만 이는 한말글과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동양 철학과 사상을 아는 한국인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유럽의 언어

국제학회로 여행할 때면 이제는 습관처럼 그 곳 문물, 언어, 문자에서 무엇 하나라도 건질 것이 있는가, 살펴본다. 2009년 6월 필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가해 나의 foldback intercoil(FBI) DNA에 관해 발표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세 가지 사항을 건졌고, 그것은 또 다른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연결되었다. 첫째, 건물목 신호등에서 “가시오”가 “GA”이었다. 둘째, 가로 곳곳에서 눈에 띄는 “IKKE”는 “NO”라는 금지 명령이었다. 감탄사로 시작된 “이크, 예크”는 크다, 많다, 예끼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태권도에서 쓰이는 구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셋째, 민속박물관에서 죽은 사람 장사에 관한 설명문을 읽다가, 영어 “dead”가 덴마크어로는 “døde”로 되어 있음을 보는 순간, 우리말의 “뉘져”와 연결됨을 깨달았다. 영어의 death와 우리말의 죽음은 아무 연관이 없었는데 이는 뜻밖의 선물이었다. 아무리 미약한 경우이지만, 핀란드뿐 아니라 분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도 우리말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믿음을 갖고 돌아왔다.

영어와 우리말

등산 중에 나의 언어 편력을 얘기하다가 이런 비슷한 쪽으로 쓴 책이 있음을 소개 받았다. 오광길(2002)은 영어와 한국어에는 어원이 같은 어휘가 적어도 200여 개 있음을 찾아냈다. 그는 그 있을법하지도 않은 연결의 시원을 추적해 들어가 아랄 해에 연결된 아리아인과 수메르인 언어, 그리고 결국 그리스 알파벳의 그림 문자에까지 도달하였다. 그의 200여 개 어휘 목록에 “dead”와 “뉘지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에서 공통 어원을 가졌다는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보자. 영어를 독일어 식으로 읽으면 더욱 명확해진다. agitate - 아귀다툼, arm - 아름, bath - 벳다, battle - 빼틀다, bottom - 바탕, butcher - 푸쫌간, gag - 개구쟁이, gaul - 고을, many - 많이, saint - 상투, seed - 씨, sexy - 섹시. 여러 가지 중요하고 흥미 있는 얘기들이 전개되지만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다. 언어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자가 제시하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어, 한국어, 인도의 드라비다어, 영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결국 한말글은 좁은 한반도에 간혀 있는 소수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원의 중심에 뿌리내리고 있고, 동서양 문명의 원형에 알게 모르게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은 표음문자로서의 과학성과 보편성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자와 한말글의 관계가 궁금해진다.

중국어와 한말글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에서 원래 물리학자인 대만인 저자는 헝가리 수상의 이름에서 통구스계 언어의 흔적을 발견한 이후 중국 북방 민족의 명칭과 성씨를 비교 연구하였다. “오래 전부터 진(秦)나라가 융적 출신이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최초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이 중국인이 아닌 이민족이었다고 한다면 모르는 몰라도 중국인들은 금세 흥분을 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나라 부락의 언어는 몽골어였다고 한다. 진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각각 qin진, jin진, qing칭으로 발음되는 것도 공통점을 시사한다. “몽골비사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다. 징기스 하안은 탕기스 하안과 달라이 하안의 두 단어와 같은 뜻으로, 모두 다 ‘큰 바다 같은 하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인민일보에는 “한자/한문은 동이족이 시작했다”는 1998년 11월 1일자 기사가 있다 (안수길 2011). 많은 사람이 ‘한자’를 중국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대중이 썼던 말은 ‘백화(白話)’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중국인들은 인민의 언어인 백화로 글을 쓰자면서 한문을 배척했다고 한다. 결국 문맹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간자체를 도입하면서 한문 사용을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자 발음도 오랜 구어체 문화의 결과로 받침이 많이 뭉그러져 있다(안수길 2010).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에서도 받침(종성)이 뭉그러지고 알파벳의 음가가 혼란스럽다. 한자의 본래 발음을 보전하며 한글로 일대일로 대입할 수 있는 능력과 풍부한 우리말 어휘를 보더라도 한자는 우리말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특히 한자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말 발음 기록의 수단으로도 쓰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 시대에 맞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맺음말

우리는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편리성에 취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대부분을 저장하는 한

문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한문을 발전시킨 동이족의 후예로서 한문 한자를 한말글로 함께 계승 발전시키는 소명의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언어에서 우리말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어 속에서도 우리말과 공통되는 뿌리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동서양 문명을 아우르며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 나라가 경제, 과학, 문화 선진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전하는 개척정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야 한다. 모든 대륙에 직항로를 운영하며 휴대전화로 정보통신의 흐름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이다. 고대 문명은 차치하고 근세에도 독일어 창달에 마틴 루터와 피히테가 있었고, 영어 전파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과학, 컴퓨터, 자유 민주주의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지구촌 언어를 꿰뚫을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있다. 한말글에 뿌리내린 한류로 온누리에 한문화의 기상을 떨치는 세종의 꿈, “세종 대업(Sejong Project)”을 펼치자.

참고문헌

- 김세택. 2010. 일본으로 건너 간 한국말. 기파랑.
 남신웅. 2004. 일본말은 한국말이다. 함무라비.
 손성태. 2009. 아즈텍 문명을 건설한 주체는 한민족. 월간개벽(162-169).
 안수길. 2011. ‘사람’ 가려 ‘이름’ 주기.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7: 46-61.
 안수길. 2010. 구어(口語)로 허물어진 오늘날의 언어.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6: 35-57.
 오광길. 2002. 역사의 키워드 아리랑과 알파벳. 씨와알.
 이영희. 1994. 노래하는 역사. 조선일보사.
 임동권. 2005. 일본 안의 백제문화. 민속원.
 주학연(문성재 역) 2009.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우리역사연구재단.
 홍수연, 홍지윤. 2009. 뉴욕 100배 즐기기. 랜덤하우스코리아.
 Charles C. Mann. 2005. “1491, New Revelation of the Americas Before Columbus”. KNOFF.